

高麗末 干支銘靑瓷의 제작 배경과 수취 체제 연구

김윤정*

- I. 머리말
- II. 干支銘靑瓷의 성격과 제작 시기
- III. 高麗末 銘文靑瓷의 시기별 수취 체제
- IV. 干支銘靑瓷의 수취 체제
- V. 맺음말

I. 머리말

간지명칭자는 편년 자료와 문헌 자료가 부족한 고려청자 연구에서 편년 기준이 될 수 있는 1차 자료이기 때문에 干支의 시기는 고려 말기 청자 연구에서 주요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간의 연구에서 간지명칭자의 제작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형, 문양, 굽의 형태, 번조법 등 조형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¹ 이러한 연구 방법은 간지명칭자의 형식이나 양식적인 특징을 파악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간지명칭자가 제작되는 원인과 배경을

* 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조교수

¹ 간지명칭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제작 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4세기 전반설과 13세기 후반설로 나누어진다. 간지명칭자의 조형적 특징으로 제작 시기를 편년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다.

14세기 전반설 : 中尾万三, 「支那北方窯の影響」, 『朝鮮高麗陶磁考』(東京: 學藝書院, 1935), pp. 94~111; 高裕燮, 『朝鮮の靑瓷』(東京: 寶雲舎, 1939); 高裕燮·秦弘燮 譯, 『高麗靑瓷』(乙酉文化社, 1954), pp. 76~79;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潤松文華』 31 陶藝 VI 靑磁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pp. 73~95.

13세기 후반설 : 野守健, 「靑磁象嵌干支銘」, 『高麗陶磁の研究』(東京: 清閑舎, 1944), pp. 120~130; 鄭良謨, 「干支銘을 통해 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象嵌靑磁』(海剛陶磁美術館, 1991), pp. 108~113; 崔健, 「高麗時代 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象嵌靑磁』(海剛陶磁美術館, 1991), pp. 119~125.

밝히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학자들마다 간지명청자의 양식적인 특징을 해석하고 편년하는 기준이 다른 점도 문제였다.²

본고에서는 간지명청자의 형식 분류와 양식적 특징에 집중하였던 기존의 연구 방법을 벗어나서 고려 말기 명문청자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간지명청자의 제작 시기와 간지를 새긴 원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즉, 몸체면에 명문이 상감되는 靑磁群의 성격을 파악하여 類型을 분류한 후에, 간지명청자와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간지명청자와 다른 명문청자들과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고찰함으로써, 간지명청자의 제작이 왕실용 청자의 수취 체제의 변화와 관련된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³

II. 干支銘靑磁의 성격과 제작 시기

청자의 명문은 일반적으로 굽 안바닥에 표기되지만 청자의 몸체면에 상감되는 현상은 고려 말기에 보이는 특징이다. 고려 말기에는 간지명청자 외에도 몸체면에 명문이 상감된 청자가 제작되었는데, 다양한 명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두 여섯 개의 群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고려 말기 명문청자에 보이는 공통된 성격과 시기별 흐름을 통해서, 간지명청자의 성격과 제작 시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고려말 명문청자의 類型과 성격

고려 말기 명문청자는 명문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개 유형으로 분류할

-
- 2 간지명청자의 양식적인 특징은 기종과 문양의 규격화·정형화, 문양의 밀도가 떨어짐, 기벽이 두꺼워지는 점, 굽다리가 높고 접지면이 넓적해지는 U형 굽으로 변화, 규석 받침이 커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간지명청자가 이전 시기의 청자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은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나 그 쇠퇴 시기를 對蒙항쟁 직후인 13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와 원의 간섭이 본격화되는 14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졌다.
- 3 간지명청자가 원종 10년(1269)인 己巳年에 시행된 貢賦收取體制의 개편으로 제작되었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간지명청자를 포함하여 고려 말기 명문청자의 흐름을 이해하고, 명문 내용을 통해서 왕실용 청자의 수취 체제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具一會, 「高麗時代 靑磁象嵌대접의 編年研究 - 干支銘이 있는 대접들을 中心으로 -」, 『美術資料』 54호 (국립중앙박물관, 1994, 12), pp. 1~41; 李喜寬, 「高麗後期 己巳銘 象嵌靑磁의 製作年代問題에 대한 새로운 접근」, 『美術史學研究』 217·218 (한국미술사학회, 1998, 6), pp. 5~25 참조.)

수 있다. 첫째, 王室 側近 세력과 관련된 銘文靑瓷은 內侍, 忽只, 巡馬가 상감된 예가 있다.⁴ 홀지나 순마는 충렬왕대에 元 官制의 영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자의 몸체에 명문이 표기되는 시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⁵ 홀지는 忽赤이라고도 하는데, 충렬왕 즉위 후에 귀족 자제들로 조직된 왕의 숙위군이며, 충렬왕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였다.⁶ ‘內侍’ 銘靑瓷에서 내시도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왕의 近侍職으로, 왕실 의례나 재정 전반을 책임지던 왕의 측근 세력이었다.⁷

둘째, 道教 의례나 도교 신과 관련된 명문청자군이 있다. 청자의 명문 내용은 燒錢色, 三官, 十一曜前排, 七元前排, 天皇前排, 天, 地, 鬼 등이 확인되며, 이러한 명문이 새겨진 청자는 왕이 직접 주관했던 왕실의 도교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왕이 주재하는 도교 의례는 12세기에 많이 설행되었고 對蒙 전쟁으로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고려 말 기에는 충렬왕대(1274~1308)에 빈번히 시행되었다.⁸ 소전색이 표기된 청자는 잔, 잔탁, 접시 등 10여점이 확인되는데, 소전색은 충렬왕4년(1278)에 도교 의례인 초제의 술을 傳講하고 供進하기 위해서 설치된 관청이었다.⁹

셋째, 간지명청자나 ‘至正’명청자와 같이 시기를 의미하는 명문청자군이다. 간지명청자는 유물이 확인된 예와 여타 자료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12개의 간지가 표기된 청자가 알려져 있다.¹⁰ 지정연간은 1341년부터 1367년까지이지만 공민왕 5년(1356)에 지정연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명이 내려지기 때문에 ‘지정’명청자는 1341년에서 1356년 사이에 제작

4 高裕燮·秦弘燮 譯, 앞의 글, pp. 53~54.

5 韓沽勛, 『麗末鮮初 巡軍研究』, 『진단학회』 22 (진단학회, 1961), p. 24. 巡馬는 원래 元의 州縣捕盜 기관이었으며, 원의 제도를 본떠서 충렬왕 3년(1277) 경에 설치되어서 조선 태조연간까지 존속되었다.

6 『高麗史』 卷 82 志 36 兵 二 宿衛 “忠烈王即位, 以衣冠子弟, 嘗從爲禿魯花者, 分番宿衛, 號曰忽赤.”

7 김윤정,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체계 연구』, 『美術史學研究』 260(한국미술사학회, 2008.12), pp. 45~47. 내시가 상감된 청자배는 현재 세 점이 확인되며, 세 점 모두 기형과 명문 위치, 굽 형태 등이 유사하여,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8 김윤정, 『고려말 道教 관련 銘文靑瓷의 성격과 제작 배경』, 『동아시아미술문화』 창간호 (고려대학교 동아시아 미술문화연구소, 2010.12), pp. 107~123.

9 『高麗史』 卷 85 志 39 刑法 二 禁令 “(忠烈王 四年) 三月, 都兵馬使據判, 出牒云, 大朝令諸路斷酒, 國家亦宜行之, 聖節日·上朝使臣·迎接內宴·燃燈·八關, 不可無酒, 令良醞署供進, 國行祭享醞酒, 良醞署亦別建造醞都祭庫, 燒錢色傳講供設, …”

10 현재까지 己巳, 庚午, 壬申, 癸酉, 甲戌, 辛巳, 壬午, 甲申, 乙酉, 丁亥, 乙未, 己巳(1389)까지 총 12개의 간지명청자가 확인되었다. 이중에 대부분은 실물 자료가 많이 전하지만 辛巳(1341)銘과 甲申(1344)銘 청자는 이용희 선생의 증언만 있었으나 ‘辛巳’銘청자 한 점이 최근 논문에서 인용된 예가 있다.(한성욱, 『高麗後期靑瓷의 연구』 (總合研究大學院大學 文化科學研究科 博士學位論文, 2006), pp. 97~98 참조.)

된 것으로 추정된다.¹¹

넷째, ‘정릉’명칭자와 ‘능실’명칭자와 같이 고려 왕실의 능에서 사용되어서, 儒敎 儀禮로 분류되는 명문청자군이 있다. 『고려사』에서 諸陵에 대한 祭祀는 禮志 吉禮 부분에 大祀로 분류되어 있다. 『고려사』 禮志의 내용은 儒敎 文化를 반영하는 것으로 고려의 유교 정치 이념과 관계가 있다.¹² 따라서 ‘正陵’이나 ‘陵室’이 상감된 일련의 청자는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교 예제에 사용된 제기임을 알 수 있다. 성리학자인 이색(1328~1396)은 1365년경에 陵室에서 행해지는 예가 신하들이 승진하거나 외지로 나가는 경우, 조참할때, 致祭에 드리는 제사 등으로 빈번해졌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禮之變’ ‘예가 바뀌었다거나 ‘起禮’ ‘예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¹³ 정릉이나 능실명칭자의 제작도 14세기 후반에 왕실 의례의 성격이 변화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官司 명칭이 상감된 청자군이다. 관사 명칭은 왕실 창고, 왕실 행사, 왕실 음식 관련 관사로 나누어진다. 왕실 창고와 관련된 명문은 德泉庫, 義成庫, 寶原庫, 內庫가 확인되며, 이 창고들은 고려 왕실의 私藏庫이면서 供上 기능을 하였다. 준비색이나 연례색과 같이 ‘색’으로 끝나는 관사는 왕실 행사를 위해 설치된 관청이었다.¹⁴ 良醞, 司膳, 膳銘청자는 왕실 음식을 공상하는 良醞署와 司膳署에서 사용된 청자이다.¹⁵

여섯째, 조선초에 태상왕·상왕·세자·중궁에 한정하여 왕실의 극소수 성원만을 위해 설치된 王室府에서 사용된 명문청자군이다. 왕실부는 왕실의 주요 구성원들의 의복, 음식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것들의 供上을 담당하는 관사였다.¹⁶ 承寧府에서 사용된 ‘寧’명칭자와 恭安府에서 사용된 ‘공안’명칭자가 있다.¹⁷ 승령부와 공안부는 조선초 왕실부의

11 『高麗史』 卷 39 世家 卷第 39 恭愍王 5年 6월 乙亥條 “停至正年號”; 『高麗史』 卷 41 世家 恭愍王 18年 5월 辛丑條 “停至正年號”

12 김철웅, 『한국중세의 吉禮와 雜祀』(경인문화사, 2007), pp. 4~5. 『고려사』 禮志 吉禮가 유교 文化를 반영하였지만 유교 예제를 철저히 적용하지는 않았음도 동시에 지적하였다.

13 李穡, 『牧隱文集』 卷 14 碑銘 廣通普濟禪寺碑銘 并序 “... ①朝臣除拜上官, 謹詣閣門謝恩出, ②使官朝辭 ③朝參, 皆詣陵下行禮, ④至節祠, 百司盛饌助奠, 愈久愈謹, 嗚呼, 禮之變也, 情之着也, 緣情起禮, 其至矣乎.”

14 김윤정, 앞의 글(2008), pp. 47~49.

15 『高麗史』 卷 77 志 31 百官 二 司醞署 “掌供酒醴...”; 同書, 같은 곳, 司膳署 “掌供膳羞...”

16 이정란, 「고려·조선전기 王室府의 재정기구적 면모와 운영방식의 변화」, 『韓國史學報』 제40호(고려사학회, 2010), pp. 313~314. 이 글에서는 조선초에 왕실 구성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開府하여 주는 왕실의 府가 되었기 때문에 통칭하여 ‘왕실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본고에서도 이 용어를 차용하였다.

17 조선초 왕실부는 모두 11개가 확인되는데 移·合屬에 따라서 두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정종 2년(1400)에 태상왕[태조]의 府로 시작한 承寧府 계열과 역시 정종 2년(1400)에 상왕부[정종]로 세워진 恭安府 계열이다.

기본 바탕을 이루는데, 주요 財政源이 고려 말의 왕실 倉庫였던 內藏庫와 保和庫였다.¹⁸ 조선초 왕실부에 고려 말기 왕실 창고의 재정이 승계되면서 供上 기능이 추가되었고, 왕실부 관련 청자도 고려 말기 왕실 倉庫銘청자의 계보를 이어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여섯 개의 명문청자군에서 간지명청자와 ‘至正’명청자의 명문을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용도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외 청자군의 명문 내용은 모두 왕실과 관련되는 사용처 및 용도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결국 간지명청자도 왕실과 관련되는 의례나 제사, 관사 등에 여러 소용처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상감‘乙酉司醞署’명매병>은 ‘乙酉’라는 간지와 함께 사용처인 사온서가 표기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왜 간지명청자에는 사용처가 아닌 시기를 의미하는 간지가 상감되었는지에 대한 점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지명청자가 시기적으로 다른 명문청자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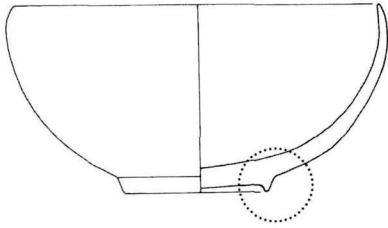
2. 간지명청자의 제작 시기

앞서 살펴본 여섯 개의 명문청자군은 각각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시기적인 선후 관계로 연결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간지명청자의 전후 시기에 제작된 명문청자를 중심으로 양식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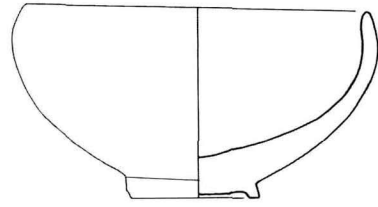
먼저, 왕실 측근 세력과 관련된 명문청자군과 도교 관련 명문청자군은 충렬왕대(1274~1308)를 시작으로 하여 14세기 1/4분기경까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홀지와 순마가 충렬왕대에 설치된 관제였고, 왕실 도교 의례가 충렬왕대에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과 함께 굽형태, 명문 위치와 표기 방법, 문양 구성 등 조형적인 면에서도 간지명청자보다 앞 시기로 추정되는 특징들이 확인된다. 반면에 유교의례명청자와 관사명청자는 간지명청자보다 늦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참조.

먼저 굽의 형태를 보면, 고려 말기 청자는 일반적으로 굽다리 모양이 V→U→ㄱ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확인된 10여 점의 소전색 관련 청자잔과 ‘내시’명청자잔은 모두 굽다리 모양이 ‘V’ 형태이다.(도 1) 간지명청자는 시기가 가장 앞서서 ‘기사’명청자부터 기벽이 두껍고, 굽다리 모양이 ‘U’형으로 투박해지는 것이 특징이다.(도 2) 간지명청자 중에서도 1347년의 ‘정해’명청자부터 굽다리 모양이 ㄱ형으로 변화하는데, 유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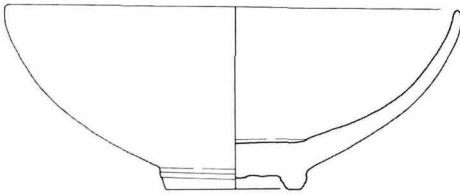
¹⁸ 『太宗實錄』卷 5, 3年 6月 乙亥條 “...罷德泉庫爲內膳寺, 義成庫爲內資寺;... 內藏庫合承寧府, 保和庫合恭安府, 義順庫合禮賓寺, 興信宮合長興庫, 延慶宮合軍資監, 延福宮合義盈庫.”



도 1 청자상감 '甌錢'명잔, 13세기 4/4분기경
높이 5.3cm, 구경 9.8cm, 저경 3.8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 청자상감 '壬申'명잔, 1332년
높이 4.9cm, 구경 10.7cm, 저경 4.1cm
호림박물관



도 3 청자상감연화당초문'正陵'명대접, 1365~1374년
높이 8.2cm, 구경 20.2cm, 저경 5.9cm
국립중앙박물관

례명청자나 관사명청자는 대부분 ㄷ형 굽을 가지고 있다.(도 3)

명문의 표기 방법과 위치에서도 시기적인 특징과 변화를 볼 수 있다. 도교 관련 청자는 글자를 쓰듯이 새긴 후에 상감하는 筆刻 기법이 많고 이외에 철화나 음각기법으로 표기되는 예도 있다.¹⁹⁾ 간지명청자는 명문을 도장으로 찍은 후에 상감하는 印刻 기법이 절대적으로 많다. 관사명, 유교

의례명, 왕실부 관련 청자의 명문은 필각과 인각 기법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대체적으로 필각 기법으로 표기된 예가 많다. 예를 들어 '정릉'명청자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13점 중에 3점의 명문은 인각 기법으로, 10점은 필각 기법으로 표기된 것이다. 간지명청자의 명문이 대부분 인각 기법으로 표기된 점도 다른 명문청자군과 구별되는 차이점이다(표 1).

간지명청자는 명문이 내면 바닥에 표기되는 형식이 정형화된 반면에 도교 관련 청자의 경우는 명문이 표기되는 위치가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청자상감'삼관'명접시>(이하 '삼관'명접시)는 굽 바닥에 명문이 필각되어 있다.(도 4) 문양 구성에서도 간지명청자 단계에서 완전하게 정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삼관'명접시>는 내저면에 국화문과 이중원문만 있지만 <'기사'명접시>에서는 이중원에 여의두문대를 두르고 내측면에 국화문이 상감되는 정형화된 문양 구성이 완성된다.(도 5) 간지명청자에서 정형화된 문양 구성은 이후 시기에 제작되는 <'정릉'명청자>로 이어지지만 내측면에 국화문이 칠원의 인화문으로

¹⁹⁾ 소전색과 관련된 명문청자는 현재 10여 점으로, 모두 실건·조사하였다. 器種은 잔 8점, 잔과 잔탁 一組 1점, 접시 1점으로 잔이 많고, 명문 표기 방법은 筆刻 후상감 3점, 음각 3점, 철화 4점이다.

표 1 시기별 명문청자의 명문 표기 방법

도교 관련 명문청자 (필각)인각		
		
燒錢 / 필각	燒錢 / 음각	燒錢色 / 철화
간지명청자 (필각)인각		
		
己巳 / 인각	癸酉 / 인각	癸酉 / 필각
유교의례명, 관사명청자 (필각)인각		
		
德泉 / 필각	正陵 / 인각	陵室 / 필각
관사명, 왕실부 관련 청자 (필각)인각		
		
司膳 / 필각	寧 / 필각	德泉 / 인각



도 4 청자상감국화절지문 '三官' 명접시
13세기 4/4분기, 높이 4.1cm
구경 13.7cm, 저경 7.3cm, 국립중앙박물관

간략화되는 시기적인 변화를 보인다.(도 6) <청자상감운학문 '壬申' 명접시>의 문양은 내측면에 포류수금문과 바닥면에 雲鶴으로 구성되었는데, <청자상감우점문 '準備' 명접시>에서는 바닥에 학문이 생략되었고, 다음 단계인 <청자상감선문 '司膳' 명청자>에서는 내측면과 바닥에 인화된 원문이나 선문으로 간략화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도 7·8·9) 굽다리의 형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간지명청자에서 관사명청자 단계로 가면서 U→ㄷ 형으로 변화한다.(도 7-1·8-1·9-1)

앞서 살펴본 명문 내용과 의미, 역사적인 상황, 조형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여섯 개 군의 명문청자를 편년하면, 도교 관련 명문청자와 왕실 측근 세력 명문청자는 충렬왕대부터



도 5 청자상감국화절지문'巳'명접시, 1329년
높이 4.6cm, 구경 13.6cm, 저경 7.0cm
계명대박물관



도 6 청자상감국화절지문'正陵'명접시
1365년~1374년, 높이 4.7cm, 구경 13.7cm
경기도박물관



도 7 청자상감운학문'壬申'명접시, 1332년
호림박물관



도 7-1 도 7의 굽바닥 모습



도 8 청자상감우점문'準備'명접시, 14세기 3/4분기,
성보갤러리



도 8-1 도 8의 굽바닥 모습



도 9 청자상감선문'司膳'명접시
높이 3.6cm, 구경 10.9cm, 저경 5.4cm
경북 칠곡 학하리요지 출토



도 9-1 도 9의 굽바닥 모습

14세기 1/4분기경에, 유교의례명청자와 관사명청자는 14세기 3/4분기경에, 일부 왕실 창고 관련 청자와 사선명청자, 조선초 왕실부 관련 청자는 14세기 4/4분기에서 15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표 2)²⁰. 고려 말기에 명문청자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공백으로 남는 시기가 14세기 2/4분기경이며, 정확하게 1329년에서 1355년까지 제작된 간지명청자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지명청자가 제작된 시기에는 '至正'銘청자도 제작되었는데 역시 시기를 의미하는 명문이 표기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1329년에서 1355년 사이와 1389년에만 제작된 청자에만 제작 시기를 의미하는 명문이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시기마다 다른 내용의 명문청자가 제작되었다는 것은 고려말기 왕실에서 사용된 청자의 수취 상황과 관련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고려 말기 명문청자의 제작 시기

1274	1329	1355	1365-1374	1381	1389	1420
燒錢色 七元前排 十一曜前排 天皇前排 三官 天·地·鬼	内侍 忽只 巡馬	己巳(1329)·庚午(1330) 壬申(1332)·癸酉(1333) 甲戌(1334)·辛巳(1341) 壬午(1342)·乙酉(1345) 丁亥(1347)·乙未(1355)	正陵	德泉庫, 宝源庫, 内庫 宴禮色, 準備色 良醞署, 陵室	己巳	德泉庫, 義成庫, 宝源庫, 司膳, 内用, 内 寧, 順, 定, 恭安府

²⁰ 고려 말기 명문청자의 시기 구분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1381년부터 1420년까지의 시기에 제작된 명문 청자와 제작 배경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논고를 통하여 자세하게 고찰하려고 하며, 본고에서는 간지명청자의 앞뒤시기에 제작된 명문청자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Ⅲ. 고려말 명문청자의 時期別 수취 체제

고려의 왕실 의례나 관사에 사용된 청자의 제작과 수취에 대한 문헌자료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청자의 명문 내용은 왕실용청자의 수취 체제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간지명청자의 이전과 이후시기에 제작되는 명문청자가 어떤 체제하에서 수취되었지를 살펴봄으로써 간지명청자가 제작된 시기의 수취 체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고려말기에 왕실용 청자의 제작과 수취에 대해서는 1389년에 사용에서 매년 여러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내용자기의 제작을 감독하고 수취해 온다는 조준의 상소문 내용이 유일한 기록이다.²¹ 14세기 말경에 내용자기를 수취했던 사용은 국왕을 宿衛하거나 近侍하는 成衆愛馬의 하나였다. 애마는 숙위 임무를 하던 'aimaq'라는 원의 관제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²² 그런데, 충렬왕대 설치된 홀지도 왕을 호위하는 숙위군이었으며, 사용과 같은 애마였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 홀지·충용과 같은 愛馬가 구하고 청함이 많아서 작폐가 심

하다거나 홀지가 보낸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경비와 물색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²³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홀지에 대한 기록은 모두 24건인데 그 중에 19건이 충렬왕대 기사이고, 이 중에 13건의 기록은 홀지가 왕이나 왕비를 위해서 연향을 열었다는 내용이다.²⁴ 홀지가 왕을 위해 연향을 열었다는 기사는 충렬왕대에만 보이며, 홀지



도 10 청자상감 '忽只初番' 명배, 고려 14세기 1/4분 기경, 높이 8.2cm, 구경 13.6cm, 소장처 미상

21 『高麗史』卷 118 列傳 31 諸臣 趙浚 “司饗，每歲遣人於諸道，監造內用瓷器，一年爲次，憑公營私，侵漁萬端，而一道馱載，至八九十牛，所過騷然，及至京都，進獻者，皆百分之一，餘皆私之，弊莫甚焉。”

22 金昌洙, 「成衆愛馬考-麗末鮮初身分階層의 一斷面-」, 『東國史學』9·10輯(동국사학회, 1966), pp. 17~35.

23 『高麗史』卷 84 志 38 刑法 一 職制 “辛禩元年，二月，教曰 諸倉庫官司及波吾赤等房，依憑內用，徵斂州縣，又有忽只·忠勇各愛馬，多般求請，作弊爲甚……”；『高麗史』卷 84 志 38 刑法 一 職制 “忠肅王五年五月 下教……一，諸道 忽赤·司僕·巡軍及權門所遣人等，影占人民，據執土田者，械繫以徇，流于遠島。”

24 『高麗史』卷 28 世家 28 忠烈王 卽位年 11月條；同書，卷 29 世家 29 忠烈王 5年 3月；同書，列傳 2 后妃 忠烈王 5年；同書，卷 29 世家 29 忠烈王 6年 1月條，忠烈王 6年 2月條，忠烈王 8年 2月條，忠烈王 9年 4月條；同書，卷 32 世家 32 忠烈王 27年 7月條，忠烈王 28年 6月條，忠烈王 31年 5月條，忠烈王 33年 10月條。

는 조선초까지 유지되었지만 충렬왕대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다.²⁵ 즉, 충렬왕대 많은 권한을 행사하였던 홀지 세력이 연향에 필요한 청자와 같은 물품들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忽只初番'과 같은 명문이 들어간 청자배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⁶ (도 10).

도교 의례와 관련된 명문청자의 수취도 왕실 의례 전반을 담당하던 內侍나 宦官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의종 23년(1169) 기록에는 도교 의례 비용이 너무 많아서 담당 관사에서 지급하지 못하자 內侍와 宦寺가 결탁하여 그 비용을 마련하였으며²⁷, 몽고와의 전쟁으로 도교 의례를 지내지 못하다가 1258년에 다시 도교 의례를 지내기 위해서 정사색이라는 관사를 설치하는데, 내시정사색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적으로 내시들에 의해 운영되었다.²⁸

결국, 충렬왕대(1274~1308)부터 14세기 1/4 분기 경에 홀지나 내시와 같은 국왕의 측근 세력들이 왕실의 도교의례나 연향 등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였고, 관련 명문청자도 이러한 과정에서 제작되고 수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미명청자가 제작되는 1355년 이후에는 왕실 관련 관사명청자가 주로 제작된다는 점을 앞장에서 언급하였다. 왕실의 대표적인 재정 창고였던 덕천고, 의성고, 보원고의 운영 상황을 통해서 14세기 후반에 왕실 창고로 납입되는 물품의 수취체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고려사』 백관지 기록을 보면, 덕천고와 의성고는 공민왕 4년(1355)에 관제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창고를 운영하는 실무진에서 祿官과 糾正이 파직되고 提舉別監이 새로 설치되었다.²⁹(표 3) 제거별감에 주로 宦官, 宗親 등 왕의 측근 세력이 임명되면서 왕실의 私藏庫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³⁰

보원고는 우왕대에 환관 이득분이 제조로 있으면서 보원고의 田稅를 횡령하는 등의

25 이익주, 「高麗 忠烈王代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韓國史論』 1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8), pp. 184~203.

26 佐雅藤彦, 「銘文のある高麗陶磁」, 『世界陶磁全集』 第13卷 朝鮮上代·高麗篇 (河出書房, 1955), p. 302, pl. 3.

27 『高麗史』 卷 19 世家 19 毅宗 23年 2月 “乙卯, 設三界醮, 時, 齋醮之費定繁, 都祭·都齋二庫, 未支其用, … 內侍劉邦義·秦得文·李鍊·金應和·金存偉·鄭仲壺·希胤·魏綽然等, 深結宦寺, 約爲兄弟, … 又制別貢, 金銀鍮銅器皿山積, …”

28 『高麗史』 卷 77 志 31 百官 二 諸司都監各色 “淨事色, 高宗時, 諸事未具, 久廢親醮, 至四十五年, 取權臣家淨事色器械, 以充其用, 選差內侍叅上叅外勤恪者, 稱內侍淨事色, 每政超資除授, 有勢者爭入, 員數漸多, …”

29 『高麗史』 卷 77 志 31 百官 二 德泉庫 “… 恭愍王四年, 罷祿官及糾正, 置提舉別監.”; 『高麗史』 卷 77 志 31 百官 二 內房庫 “… 恭愍王四年, 復稱內房庫, 罷祿官及糾正, 置提舉別監.”

30 李愚喆, 「高麗時代의 宦官에 대하여」, 『史學研究』 1집 (한국사학회, 1958), pp. 35~36. 공민왕 초엽에 환관들의 정식 직제인 內侍府가 신설되어서, 환관의 관료적 지위가 급격하게 상승되었으며, 공민왕 4년(1355)에 의성고와 덕천고에 임명된 제거별감을 시작으로 우왕대 義順庫와 寶源庫에도 환관 세력이 실권을 장악하였다; 『太宗實錄』 卷 28 14年 8月 丁巳條 “… 前朝之季, 於倉庫宮司, 分遣宦寺, 稱爲別監…”

표 3 德泉庫·義成庫의 時期別 운영자의 성격

교체 시기	덕천고 官吏의 변화	의성고 官吏의 변화	운영자의 성격
충선왕 원년 (1309)	德泉倉使, 秩從五品, 副使, 從六品, 丞, 從七品	置使, 秩從五品, 副使, 從六品, 丞, 從七品.	정식 관리
충숙왕 12년 (1325)	罷員吏	罷員吏	-
충숙왕 17년 (1330)	置員吏, 委糾正	置員吏, 委糾正	정식 관리+감찰관
공민왕 4년 (1355)	罷祿官及糾正→置提舉別監	罷祿官及糾正→置提舉別監	환관, 종친
창왕 즉위년 (1388)	復設使·副·丞·注簿	復設使·副·丞·注簿	정식 관리

여러 문제로 우왕7년(1381)에 계림으로 유배되었다.³¹ 또한 보원고가 왕실의 私藏庫로 운영되면서, 우왕이 별감들을 통해서 창고의 물건들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³² 공양왕 2년(1390)에 헌부의 상소에서도 당시 倉庫의 提調를 종친들이 맡고 있어서 이를 중지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³³ 또한 우왕 14년(1388)에 대사헌 조준이 ‘창고 궁사에서 소용되는 것들이 內豎[환관]에 의해 독단적으로 처리되어서 그들에 의해 私取되니, 內用의 물색을 도평의사로 하여 이바지하게 할 것’을 상소하고 있다.³⁴

이는 1355년에 창고의 운영에서 녹관과 규정이 혁파되고 제거별감으로 대체된 이후에, 제거별감에 임명된 환관들이 왕실에 납입되는 물품들을 어떤 규찰도 없이 독립적·독단적으로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덕천·의성고·보원고 등의 명문청자는 창고마다 필요한 물색을 독립적으로 수취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55년 이후에 왕실 창고뿐만 아니라 다른 관사의 경우도 필요한 물품으로 독립적으로 수취하면서 관사명이 표기된 청자들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31 『高麗史』卷 112 列傳 35 宦者 李得芬 “李得芬有寵於辛禡, 位至贊成事, 貪慾納賄, 多行不義, …, 得芬嘗提調普源庫, 收田稅入其家, …”; 『高麗史節要』卷 31 禡王 7年 “流宦者李得芬于雞林…”

32 『高麗史』卷 136 列傳 49 禡王 12年 正月 “…禡欲與肅寧翁主珠玉粧, 召寶源庫別監黃補, 問珠玉之數, 補對以無, 禡大怒, 卽囚于巡軍, …”; 『高麗史』卷 136 列傳 49 禡王 13年 正月 “禡令寶源庫, 進綺絹百匹, 別監版圖摠郎李蔓實, 以庫置, 不卽進, 禡怒杖二百…”

33 『高麗史』卷 77 志 31 百官 二 宗室諸君[異姓諸君] “恭讓王二年, 憲府上疏曰, 宗親不任以事, 古之制也, 近年, 多帶成衆愛馬·倉庫·宮司提調, 乞皆停罷以尊王親”; 『高麗史節要』卷 34 恭讓王 2年 11月.

34 『高麗史節要』卷 33 辛禡 四 禡王 14年 “舊制, 下王牌於諸倉庫宮司, 必印以行信寶, 今內豎, 獨署其名, 亦非所以防姦也, 願凡所內用, 令都評議使供之, 毋下王牌, 以塞內豎盜竊之源, …”

IV. 干支銘青瓷의 수취 체제

1. 왕실 倉庫의 糾正官 설치와 역할

현재까지 간지명칭자는 1329년에서 1355년 사이와 1389년에 제작된 예만이 확인되었다. 왜 이 시기에만 청자에 간지를 표기하였는지에 대한 문제는 간지명칭자 연구에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었지만 해결하기 힘든 과제였다. 앞장에서 간지명칭자 이후에 제작되는 관사명칭자는 1355년에 시행된 왕실 창고의 관제 개편으로 변화된 수취 체제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면 1355년 이전에는 왕실 창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高麗史』百官志를 보면, 왕실의 대표적인 재정 창고인 덕천고와 의성고는 충선왕 원년(1309)에 설치된 이후에 운영 체제에 몇 번의 변화가 있었다. 1330년부터 1355년까지 덕천고와 의성고의 실무 운영자에 ‘員吏’와 ‘糾正’이 배치되었다.³⁵ 원리는 정식 관원인 祿官을 의미하며, 창고 운영에서 녹관은 置廢가 반복되었지만 糾正은 1330년에서 1355년 사이에만 설치되었던 점이 주목된다(표 3).

백관지에서 규정이 ‘倉庫와 倉官을 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규정은 어사대에 속해서 감찰 업무를 하였다.³⁶ 趙浚(1346~1405)은 규정이 백관을 살펴서 왕의 귀와 눈이 되고 모든 제사나 조회, 전곡 출납을 감찰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³⁷ 그러면 규정은 창고에 배치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고려사』 김보 열전에서 糾正官 정온과 의성·덕천창 제조 김보가 대립했던 두 사건에서 규정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³⁸

35 『高麗史』卷 77 志 31 百官 二 德泉庫 “忠肅王…十七年, 復置員吏, 委糾正監之”; 『高麗史』卷 77 志 31 百官 二 內房庫 “忠肅王…十七年, 復爲義成倉, 置員吏, 委糾正監之.”

36 宋春永, 「高麗 御史臺에 관한 一研究」, 『大丘史學』 3집(대구사학회, 1971), pp. 11~33. 어사대는 모든 관리의不正非違를 監察糾劾하여 彈劾하거나 인사 문제, 관제 개혁, 私田 개혁, 敎育, 獄訟, 軍備, 典禮, 풍속·기강, 토목공사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역할을 하였다.

37 『高麗史』卷 118 列傳 31 諸臣 趙浚; 『高麗史節要』卷 33 辛禡 四 禡王 14年 “糾正, 職察百官, 爲人主之耳目, 凡祭祀朝會, 以至錢穀出納, 悉皆監檢, 秩卑而責重, …”

38 『高麗史』卷 114 列傳 27 諸臣 金普 “金海府人, 忠定朝, 拜知密直, 恭愍初, 轉僉議評理, 錄燕邸侍從功爲一等, 賜忠勤亮節巨輔功臣號, 提調義成德泉倉. ① 有倉奴附倉官, 欲納布, 受信州租稅, 普許之, 吏具牒, 詣糾正鄭暉, 請署, 暉問之, 吏曰, 欲省陸運價錢耳. 暉問信州去京遠近, 吏給曰, 七八日程也. 暉乃署之, 後知爲吏欺, 收其牒, 倉官共疾之. ② 他日, 暉又見庫外別置米五碩, 詰之, 吏以羨餘爲解, 暉意倉官竊用, 告于臺, 普由是積不平, 訴暉於王, 繫巡軍, 尋釋之. ③ 王遂罷義成, 德泉官及監檢糾正, 稱內房庫, 別設提舉以掌之, 未幾召臺官諭曰, 聞卿等, 以革倉官欲劾金普, 予將復置勿彈.”

(가)-㉠ 어떤 倉奴가 倉官에게 아부하여 布를 徵納하고 信州 지역의 租稅를 받고자 하였는데, 이를 당시 의성·덕천창 제조였던 김보가 허락하였다. 吏[창관]가 牒을 갖추어 규정 정운에게 서명하기를 청하였는데, 정운이 이를 물은즉 吏가 말하기를, “육지로 運輸하는 운임을 생략하고자 한다.”고 하거늘 정운이 묻되, “신주에서 서울에 가기가 원근이 얼마인가.”하니 吏가 속여 말하기를, “7,8일 길이라.”하여 이에 서명 했더니 후에 吏에게 속았음을 알고 그 牒을 회수하니 倉官이 모두 미워하였다.

(가)-㉡ 다른 날에 정운이 또 창고 밖에 따로 둔 쌀 5碩[10가마]을 보고 힐문하니, 吏가 남은 것이라고 말하거늘 정운이 倉官이 盜竊하여 쓴다고 생각하여 臺[어사대]에 보고하니 김보가 이로 말미암아 불평을 쌓아 정운을 왕께 참소하여 巡軍에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였다.

(가)-㉢ 왕이 드디어 義成·德泉官 및 監檢糾正을 파하여 내방고라 일컫고 따로 提擧를 두어 맡게 하였다. 얼마 안되어 臺官을 불러 타이르기를, “듣건대 그대들이 倉官을 개혁하여 金帛을 탄핵하고자 한다니, 내가 장차 다시 들 것이니 탄핵하지 말라.”고 하였다.

(가)-㉠의 사건은 창노와 창관이 모의하여 신주 지역에서 의성창과 덕천창에 납부하는 포를 대납하고 조세를 대신 받아 챙기려고 했던 사건이다. 창고의 관리가 조세 대납을 모의하고 提調까지 허락하여, 가짜 문서[牒]를 작성하고 규정관 정운에게 서명을 요청하는데, 이때 정운은 문서 내용을 조목조목 확인한 후에 서명을 하고 있다. 후에 속은 것을 안 정운이 문서를 회수하자 倉官이 모두 미워하였다는 것이다. 정운이 속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牒을 회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 창관과 제조 김보까지 압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은 창고 밖에 쌓아둔 쌀가마를 수상하게 여긴 정운이 창관의 비리라고 생각하여 어사대에 보고한 사건이다. 규정이 창고의 운영 상황과 창관의 행동을 주도면밀하게 감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보가 참지 못하고 왕에게 참소하여 정운을 순군에 가두었지만 곧 석방되었다. 그러나 공민왕이 의성창과 덕천창의 관리 및 감검규정을 파하고 提擧를 설치했다는 사실에서 결과적으로 공민왕이 김보의 편을 들어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김보는 공민왕을 燕邸에서 시종한 功으로 1등 공신 칭호와 의성·덕천창 제조를 하사받은 인물이었다.³⁹⁾

공민왕은 녹관과 규정을 같이 파하지만 규정을 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

³⁹⁾ 본고 주) 38 참조.

으로 추정된다. ㉔의 기록을 보면, 공민왕이 臺官을 불러서 김보를 탄핵하려는 것을 회유하면서 다시 감감규정을 둘 것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규정이 왕과 대치되는 입장이었다면 이때 파직 당한 관리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파직된 창고 관리는 義成倉官 全以道와 禹攸吉, 德泉倉官 崔云固와 申天命이었는데, 우유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典客寺丞에 제배되었다.⁴⁰ 이들 중에 전이도의 행적은 『고려사』에서 확인되는데, 그는 공민왕의 入元시에 宿衛했던 공으로 1352년에 郎將과 1등 공신을 받은 인물이다.⁴¹ 그 후에도 공민왕 12년(1363)에 군사들을 소집해서 왕을 보좌하여 1등 공신에, 개경을 수복하여 2등 공신으로 錄勳되는 등 공민왕의 측근 세력으로 활약하였다.⁴²

창고 제조와 倉官은 공민왕의 燕邸 수종 공신이었지만 규정관 정운은 이들을 철저히 監察하였는데, 정운은 과거제를 통해 出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³ 당시 왕실 재정을 둘러싸고 왕의 측근 세력과 감찰 관료와의 갈등 구조를 볼 수 있다.⁴⁴ 결국 공민왕은 왕실 창고에 대한 감찰 기능을 없애고 창고에 환관 등의 제거별감을 파견함으로써 창고를 장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간지명청자와 같이 제작된 해를 표기하는 것은 物色의 수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왕실 관련 官司나 儀禮, 연향 등에 소용되는 청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었을 것이다. 간지명청자가 왕실 재정 倉庫에 규정이 존재했던 1330년에서 135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이다(표 4).

간지명청자의 기형과 문양이 규격화되었다는 점도 규정에 의해서 왕실 창고 등으로 수취되는 공납물들이 철저히 감시·감독을 받던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는데 단서가 된다. 실제 간지명청자의 제작 시기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간지

40 『高麗史』 卷 109 列傳 22 諸臣 申君平 “恭愍… 四年, 王命罷義成倉官全以道·禹攸吉, 德泉倉官崔云固·申天命, 未幾, 攸吉拜典客寺丞, 攸吉君平友婿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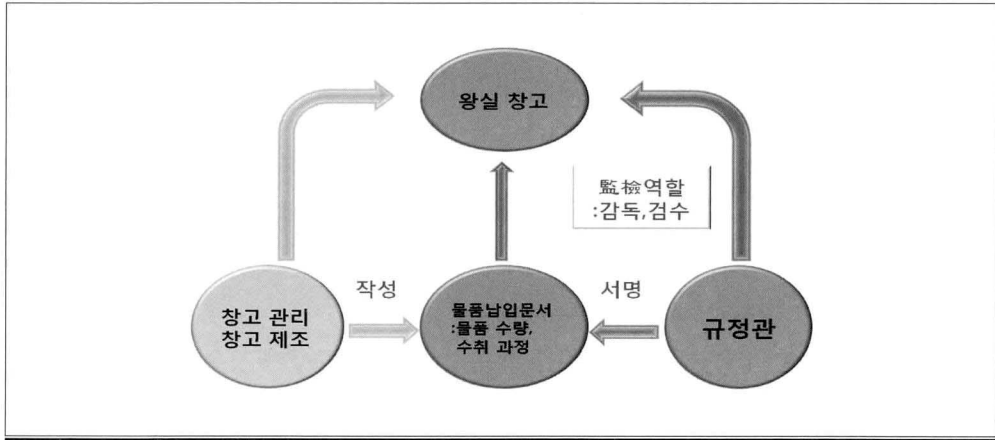
41 『高麗史』 卷 114 列傳 27 諸臣 “全以道, 從恭愍, 入元宿衛, 及王即位東還, 授郎將, 錄侍從功爲一等.”

42 『高麗史』 卷 40 世家 40 恭愍王 12年 閏3月 “錄僉兵輔佐功, 以左政丞 柳濯, …, 前判典農寺事 全以道, 大護軍 林堅味, 爲一等功臣”; 同書, 卷 40 世家 40 恭愍王 12年 閏3月 “又錄收復京城功, 以贊成事商議 黃裳…, 前判典農寺事 全以道…爲二等功臣.”

43 『高麗史』에서 정운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여 登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고려사』열전에서 확인되는 규정을 역임했던 인물들은 모두 登第者였기 때문에 정운도 登第를 통해서 出仕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登第하여 糾正을 역임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高麗史』 卷 106 列傳 19 諸臣 李衍宗; 同書 卷 109 列傳 22 諸臣 禹倬; 同書 卷 109 列傳 22 諸臣 安軸; 同書 卷 109 列傳 22 諸臣 張沆; 同書 卷 109 列傳 22 諸臣 王伯; 同書 卷 110 列傳 23 諸臣 李齊賢; 同書 卷 112 列傳 25 諸臣 李公遂; 同書 卷 112 列傳 25 諸臣 李存吾; 同書 卷 120 列傳 33 諸臣 吳思忠 참조.)

44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 운영과 조세 제도』(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 191~192, p. 194.

표 4. 왕실 창고의 물품 수취 체제와 규정의 역할



명청자의 기형이나 문양이 정형화되었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한다.⁴⁵ 간지명청자의 기종이 한정되고 기형과 문양이 규격화되었던 현상은 국가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그 해에 제작할 청자의 수량을 하달하고 기종과 기형, 문양까지 정해주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⁴⁶ 또한 干支의 刻字는 대부분 印章을 이용한 印刻 기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제작 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제작하고자 했던 의도라고 생각한다.⁴⁷

간지명청자의 조형적인 특징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와 해석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정형화와 규격화는 規制와 監督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창고에 규정관이 배치되는 1330년에서 1355년은 이러한 규제와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시기인 것을 규정관 정운의 감찰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관리들이 공납을 수취하기 위해 만든 문서[牒] 내용을 조목조목 확인하면서 서명을 했지만 후에 속은 것을 알고 첩을 회수했다는 것은 문서에 서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취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간지를 새긴다는 것은 특정한 해에 필요한 수량이 정해졌다는 것이며, 그것에 간지를 새기는 것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당시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편이었을 것이다.

간지명청자는 특정 사용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제작되어 倉庫나 色 등

⁴⁵ 鄭良謨, 『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국립중앙박물관, 1991), pp. 268~283; 具一會, 앞의 글, pp. 1~41. 청자에 干支를 새기는 것은 수량을 파악하고 품질 보장과 私用을 금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 공납용 자기의 질과 양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다; 崔健, 『干支銘靑磁의 製作時期와 製作竈』,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 - 銘文·符號 特別展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0), pp. 81~109.

⁴⁶ 李喜寬, 앞의 글, pp. 13~14.

⁴⁷ 13세기 4/4분기경부터 15세기 1/4분기까지 제작된 명문청자 중에 印刻기법이 많은 수량에 지속적으로 사용된 예는 간지명청자가 유일하다. 대부분 명문청자는 筆刻과 印刻 기법이 함께 사용되었다.

표 5. 干支銘靑瓷의 종류와 시기

干支	時期	在位王
己巳	1329	충숙왕 16년
庚午	1330	충숙왕 17년
壬申	1332	충숙왕 복위1년
癸酉	1333	충숙왕 복위2년
甲戌	1334	충숙왕 복위3년
辛巳	1341	충혜왕 복위2년
壬午	1342	충혜왕 복위3년
甲申	1344	충혜왕 복위5년
乙酉 司醞署	1345	충목왕 1년
丁亥	1347	충목왕 3년
乙未	1355	공민왕 4년
己巳	1389	공양왕 원년

의 관사로 공납되었고, 이 과정에서 관리들의 문서 조작이나 私取를 막기 위한 糾正官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⁸ 간지명칭자의 기형과 문양은 고려 말기에 제작되는 다른 명문칭자와 비교했을 때, ‘己巳’銘을 비롯하여 庚午, 壬申, 癸酉, 甲戌명은 비교적 품질이 좋으며, 품질이 떨어지는 壬午, 丁亥, 乙未銘 칭자의 경우도 기형과 문양은 규격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관리·감독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간지명칭자는 1329년부터 제작되는데, 왕실 창고에 규정관이 임명되는 공식적인 시기는 1330년(충숙왕 17)이다. 현재 확인되는 12개 종류의 간지

명칭자 중에 다섯 干支가 충숙왕 재위 기간에 해당하고, 충혜왕이 재위했던 1331년에 해당하는 ‘辛未’명칭자는 아직 확인된 예가 없다(표 5). 이러한 점에서 간지명칭자의 제작이 충숙왕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덕천고와 의성고는 1325년에 원리가 혁파된 후에 1330년까지 운영자가 없는 상태였고, 충숙왕 16년(1329)에도 규정이 광흥창에서 관리들의 부정을 규찰하고 있었다.⁴⁹ 따라서 덕천고와 의성고도 1330년 이전부터 규정이 창고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제도나 관제가 시행되는 시점과 기록으로 공식화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숙왕이 1330년 2월에 갑자기 원에 국왕인을 빼앗기는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상황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1389년 ‘己巳’명칭자의 제작과 수취 체제

간지명칭자의 제작이 왕실용 물품의 수취 체제나 糾正의 역할과 관련된다는 점은 1355년 이후에 간지명칭자가 제작되지 않다가 1389년에 다시 제작되는 ‘기사’명칭자 때문에 더욱 확실해진다. 1389년으로 추정되는 ‘기사’명칭자는 현재 네 점 정도가 확인

⁴⁸ 채하중(?~1357)이 공민왕에게 ‘諸倉庫를 監察하는 규정을 罷하기를 의논하였는데,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당시 규정관이 덕천고와 의성고 뿐만 아니라 다른 창고도 監檢하였음을 알 수 있다.(『高麗史』卷 125 列傳 38 姦臣 蔡河中 “河中議罷糾正監諸倉庫, 王默然, 復領都僉議.”)

⁴⁹ 『高麗史節要』卷 24 忠肅王 16年 己巳 “廣興倉頒祿, 時, 國無紀綱, 諸衛別將散員等, 親到倉門, 或冒受, 或劫奪, 糾正不能糾治, 手執鞭杖, 終不能禁.”



도 11 청자상감파어문‘己巳’명접시, 1389년
높이 4.1cm, 구경 13.97cm
Victoria and Albert Museum

되는데⁵⁰, ‘己巳’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상감된 점이 세로로 상감된 이전 시기의 간지명청자와 차이점이다. Victoria and Albert Museum에 소장된 ‘기사’명청자도 간지가 가로로 상감되어 있고, 波線紋과 魚紋에서도 14세기 말기의 경향을 보인다(도 11).

1389년에 간지명청자의 제작은 1388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혁과 조준을 필두로 하는 개혁 세력의 제도 개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388년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우왕이 폐위되고 창왕이 즉위하면서 제도의 개편과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다음 기록에서 즉, 왕실 공물 수취 과정과 창고의 운영 체제가 변화하고,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혁 세력의 분위기를 볼 수 있다.

(나) 우왕 14년(1388) 6월에 창왕이 즉위하여 교하기를, “貢賦를 설치함에는 스스로 정한 제도가 있는데 근래에 변고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징령에 법이 없어 백성들이 그 해를 받았으니 각 도 주·부·군·현의 지난해의 밀린 부채와 미납한 공물을 일체 모두 면제하고, 금년 무진년(1388)의 공물도 피죄인 등의 家財로써 충당하여 사용할 것이며, 그 私錢으로써 먼저 代納하고 향리에 내려가 배로 징수하는 자는 다만 그 본전만을 주고 기사년(1389)으로부터 비로소 納貢을 예전과 같이 할 것이로되 그 이미 官에 도달된 것은 이 제함에 두지 않는다.”고 하였다.⁵¹

(다) 창왕 즉위년(1388) 8월...의성과 덕천 여러 창고는 전곡이 있는 곳이니 빌건대 풍저창·요물고의 예에 의하여 다시 사·부·승·주부를 설치할 것이요⁵²

(라) 규정은 직책이 백관을 살펴서 왕의 귀와 눈이 되고, 모든 祭祀와 朝會로부터 전곡 출납

50 野守健, 앞의 책, pp. 128~129; BERNARD RACKHAM, *CATALOGUE OF THE LE BLOND COLLECTION OF COREAN POTTERY*,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1918, pl. 85, p. 32.

51 『高麗史』卷 80 志 34 食貨 三 賑恤 恩免之制 “辛禡…十四年六月, 辛昌即位, 教曰, 貢賦之設, 自有定制, 近因多故, 徵斂無藝, 民受其害, 各道·州·府·郡·縣往年逋負, 未納貢物, 一皆蠲免, 今戊辰年貢物, 亦以被罪人等家財充用, 其有先納私錢, 下鄉倍徵者, 止償其本, 自己巳年, 始納貢如舊, 其已發到官者, 不在此限.”

52 『高麗史』卷 137 列傳 50 昌王 即位年 8月 “…義成·德泉諸倉庫, 錢穀所在, 乞依豐儲·料物例, 復設使·副·丞·注簿至…”

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찰 단속하는 것이니 품계는 낮아도 책임은 중합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대간에서 천거하게 하여 그 직책을 주되 그 품계를 正言의 다음으로 올려서 기강을 떨치게 하소서.⁵³

위의 세 기록은 모두 창왕이 즉위하는 1388년에 취해진 내용이다. (나) 기록은 창왕의 즉위 교서 중의 일부인데, 각 지역의 미납된 공물을 일체 면제하고, 1388년의 공물도 징렴하지 않고 죄인들의 家財로 충당하여 사용할 것이며, 기사년(1389)부터는 納貢을 예전[舊]처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목된다. 己巳年부터 적용되는 舊制의 納貢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33년 동안 간지명칭자가 제작되지 않다가 다시 제작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 기록은 창왕은 즉위년(1388) 8월에 의성고와 덕친고 등의 여러 창고에 제거별감 대신에 다시 사·부·승·주부와 같은 정식 관리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왕실 창고의 운영 체제가 1355년 이전으로 복귀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 기록도 우왕 14년(1388)에 조준이 올린 시무책 중의 일부인데, 규정의 감찰·단속[監檢]하는 역할이 중요하니 그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점을 창왕에게 상소하는 것이다.

이렇듯 1388년에 일어난 정치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이루어진 여러 부분에서 제도의 개선은 1389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왕실 관련 공납 청자에 다시 간지가 새겨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1389년으로 추정되는 ‘기사’명칭자 이후에 해당하는 간지명칭자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서, 이러한 상황은 1389년에 다시 창왕이 폐위되고 공양왕이 추대되면서 새로운 변수들 속에서 유지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V. 맺음말

고려말기에 제작된 전체 명문청자의 명문 내용을 기준으로 여섯 개 군으로 분류하여, 명문청자의 성격과 시기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명문의 성격, 기형, 문양, 굽형태, 번조방법, 명문 위치와 표기 방법 등을 비교하여 시기적인 선후 관계를 확인하였다. 즉, 간지명칭자가 도교 관련이나 왕실 측근 세력 관련 청자보다 뒤시기에, 유교의례나 관사명칭자보

⁵³ 『高麗史節要』卷 33 辛禑 四 禑王 14年 “糾正, 職察百官, 爲人主之耳目, 凡祭祀朝會, 以至錢穀出納, 悉皆監檢, 秩卑而責重, 願自今, 令臺諫, 薦舉以授其職陞, 其秩於正言之次, 以振紀綱, …”

다 앞서기에 제작되는 시기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간지명청자는 1329에서 135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려 말기에 제작된 전체 명문청자 중에 간지명청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용도나 사용처를 의미하는 명문이 표기되어 있었고, 모두 왕실과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간지명청자의 경우 특정한 사용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왕실에서 필요한 청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년 단위로 제작·수취하였고, 왕실 倉庫와 같은 관사, 왕실 의례, 제사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329년부터 1355년까지, 1389년 청자에만 간지가 표기되었던 원인은 왕실용 청자의 수취체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1330년에 이루어진 왕실 창고의 관제 개편에서 새롭게 설치되는 糾正이 왕실 관련 관사에 貢納되는 청자의 수취 과정을 監檢[감독·단속]하는 방편으로 상감청자에 간지를 새기게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보았다. 규정관은 년 단위로 수취되는 왕실용 물품의 수량과 수취 과정을 감독·검수하였는데, 간지의 표기는 해마다 수취되는 왕실용 청자의 전체 수량을 파악하고, 수취과정에서 관리들의 문서 조작이나 私取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糾正이 혁파되는 1355년 이후에는 간지명청자가 더 이상 제작되지 않고 관사명청자들이 나타나는 점도 왕실 관련 관사로 납입되는 物色들이 더 이상 규정에 의한 監檢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사마다 독립적인 수취 체제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Key Words)** _고려말(late Goryeo), 간지명청자(Ganji Inscribed Celadons(the sexagenary cycle Inscribed Celadons)), 명문청자(inscribed celadon), 糾正官(Gyujeonggwan(the supervisory government official))

■ 투고일 2012년 5월 23일 | 심사개시일 2012년 9월 7일 | 심사완료일 2012년 10월 8일 ■

참고문헌

1. 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牧隱文藁』, 『太宗實錄』

2. 단행본

高裕燮, 『朝鮮の靑瓷』, 東京: 寶雲舎, 1939.

高裕燮·秦弘燮 譯, 『高麗靑瓷』, 乙酉文化社, 1954.

김철웅, 『한국중세의 吉禮와 雜祀』, 경인문화사, 2007.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 운영과 조세 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東京: 清閑舎, 1944.

中尾万三, 『朝鮮高麗陶磁考』, 東京: 學藝書院, 1935.

BERNARD RACKHAM, CATALOGUE OF THE LE BLOND COLLECTION OF COREAN POTTERY,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1918.

3. 논문

具一會, 「高麗時代 靑磁象嵌대접의 編年研究 -干支銘이 있는 대접들을 中心으로-」, 『美術資料』 54호, 국립중앙박물관, 1994. 12.

金載名, 「高麗後期 王室財政의 二重的 構造-이른바 私藏의 變化 過程을 中心으로」, 『震檀學報』 89호, 진단학회, 2000.

金昌洙, 「成衆愛馬考-麗末鮮初 身分階層의 一斷面-」, 『東國史學』 9·10輯(동국사학회, 1966.

김윤정, 「고려말 道教 관련 銘文靑瓷의 성격과 제작 배경」, 『동아시아미술문화』 창간호, 고려대학교 동아시아미술문화연구소, 2010.12.

_____, 「高麗末·朝鮮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체계 연구」, 『美術史學研究』 260, 한국미술사학회, 2008.12.

宋春永, 「高麗 御史臺에 관한 一研究」, 『大丘史學』 3집, 대구사학회, 1971.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澗松文華』 31 陶藝 VI 靑磁,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李愚喆, 「高麗時代의 宦官에 대하여」, 『史學研究』 1집, 한국사학회, 1958.

이익주, 「高麗 忠烈王代 政治狀況과 政治勢力의 性格」, 『韓國史論』 1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8.

이정란, 「고려·조선전기 王室府의 재정기구적 면모와 운영방식의 변화」, 『韓國史學報』 제40호, 고려사학회, 2010.

李喜寬, 「高麗後期 己巳銘 象嵌靑磁의 製作年代問題에 대한 새로운 접근」, 『美術史學研究』 217·218, 한

국미술사학회, 1998, 6.

鄭良謨, 「干支銘을 통해 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象嵌靑磁』, 海剛陶磁美術館, 1991.

鄭良謨, 「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 국립중앙박물관, 1991.

崔健, 「高麗時代 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관하여」,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象嵌靑磁』, 海剛陶磁美術館, 1991.

崔健, 「‘干支’銘靑磁의 製作時期와 製作窯」,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郷 - 銘文·符號 特別展 -』,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0.

한성욱, 『高麗後期靑瓷の研究』, 總合研究大學院大學 文化科學研究科 博士學位論文, 2006

韓沽勳, 「麗末鮮初 巡軍研究」, 『진단학보』 22, 진단학회, 1961.

국문초록

간지명칭자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제작 시기나 원인 등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해석은 없는 상황이었다. 본고는 간지명칭자의 형식 분류와 양식적 특징에 집중하였던 기존의 연구 방법을 벗어나서 고려 말기 명문칭자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간지명칭자의 제작 시기와 원인을 파악해 보았다.

고려말기에 제작된 전체 명문칭자의 명문 내용을 기준으로, 왕실 측근 세력 관련 칭자, 도교 관련 칭자, 干支銘칭자, 儒教儀禮銘칭자, 官司銘칭자, 조선초 王室府 관련 칭자 등 여섯 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명문의 성격, 기형, 문양, 굵형태, 번조방법, 명문 위치와 표기 방법 등을 비교한 결과 시기적인 선후 관계를 확인하였다. 도교 관련이나 왕실 측근 세력 관련 칭자는 충렬왕대(1274~1308)부터 14세기 1/4분기경에, 유교의례나 관사명칭자는 14세기 3/4분기경에 제작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간지명칭자는 14세기 2/4분기경에 해당하는 1329에서 135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고려 말기에 제작된 전체 명문칭자 중에 간지명칭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용도나 사용처를 의미하는 명문이 표기되어 있었고, 모두 왕실과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간지명칭자의 경우 특정한 사용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왕실에서 필요한 칭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년 단위로 제작·수취하였고, 왕실 倉庫와 같은 관사, 왕실 의례, 제사 등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329년부터 1355년까지 그리고 1389년에만 칭자에 간지가 표기되었던 원인은 왕실용 칭자의 수취체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1330년에 이루어진 왕실 창고의 관제 개편에서 새롭게 설치되는 糾正이 왕실 관련 관사에 貢納되는 칭자의 수취 과정을 監檢[감독·단속]하는 방편으로 상감칭자에 간지를 새기게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보았다. 규정관은 年 단위로 수취되는 왕실용 물품의 수량과 수취 과정을 감독·검수하였는데, 간지의 표기는 해마다 수취되는 왕실용 칭자의 전체 수량을 파악하고, 수취과정에서 관리들의 문서 조작이나 私取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糾正이 혁파되는 1355년 이후에는 간지명칭자가 더 이상 제작되지 않고 관사명칭자들이 나타나는 점도 왕실 관련 관사로 납입되는 物色들이 더 이상 규정에 의한 監檢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사마다 독립적인 수취 체제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에 趙浚 등의 개혁 유신이 정권을 잡으면서, 己巳年(1389)부터 납공을 예전과 같이 한다는 창왕의 즉위 교서, 왕실 재정 창고에 朝官 설치, 糾正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의 변화가 1389년에 ‘기사’명칭자의 제작 배경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Abstract

A Study of the Production and Collection of Ganji Inscribed Celadons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Kim, Yun-jeong *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 features and production dates of the inscribed celadon works of late Goryeo after they a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inscriptions. The studied vessels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regarding the content of inscriptions, forms, decoration, shape of foot-ring, firing props, location of inscription and marking methods to trace their production dates. The comparison reveals that the vessels with Ganji (i.e. the Chinese sexagenary cycle) inscriptions were made later than those related with Daoism and officials close to the Goryeo's royal family and earlier than the vessels related with Confucian ceremonies and those inscribed with the names of government offices that used them. In other words, the celadon vessels with Ganji inscriptions are conjectured to have been made between 1329 and 1355. Researches also reveal that these celadon vessels were made not for any specified users but for the entire royal court of Goryeo. They were made to be collected once a year, kept in the offices of royal finance and used for various ceremonial occasions held at the royal court. Finally, that only those vessels produced between 1329 and 1355 and in 1389 had Ganji inscriptions seems to have been related with the production and collection system for the celadon vessels made in this period. The proposed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the inscriptions were made according to a direction of the supervisory government official (Gyujeonggwon) newly appointed in 1330 as part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offices of royal finance, that wanted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eladon vessels produced for the use in the Goryeo's royal court.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ultural Properties of Yong In University